核보유국의 ‘핵공포 역설’

“폭발점으로부터 1㎞ 반경 내에선 사악한 신(神)이 갑자기 화염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것 같았다.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순간적으로 스러졌다. 꽃 나무 잔디 등 식물은 모두 고사했고, 마른 나무는 화염으로 변했으며, 강철빔은 부글부글 끓었다. 숨쉴 공기는 순식간에 불타 없어졌고, 노출된 사람들은 의식과 감각을 잃었다. 사람들은 서있는 채 새카만 숯으로 변했고, 숯기둥들은 서 있던 자리에서 소리없이 넘어졌다….”

이 글은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투하 현장의 목격담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. 데이비드 바라시와 찰스 웨벨의 공저 ‘평화와 갈등 연구(Peace and Conflict Studies)’ 88쪽에 인용된 이 대목은 핵피폭의 참상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. 실상은 ‘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’ 정도가 아니었을까. 오죽하면 구소련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“핵전쟁이 나면 생존자들은 사망자들을 부러워할 것”이라고 말했겠는가.

첫 핵공격이 있은 지 59년만에 사정은 좀 바뀐 듯하다.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요즘 미국이 ‘핵테러’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.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핵무기를 입수한 알 카에다가 “아메리칸 히로시마”라고 통화하는 것이 미 중앙정보국(CIA)에 청취됐다며 “미국은 10년 내에 핵테러를 당할 수 있다”고 최근 예고했다. 알 카에다가 작은 핵무기 하나라도 뉴욕시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터뜨린다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,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, 유엔본부 등이 황폐화되고 50만명이 순간적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.

지난달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의 ‘애스펀 전략그룹’도 “핵테러 위협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”며 미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. 핵테러를 연구해온 하버드대학의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“부시는 9·11 한달 뒤 알 카에다 요원이 10킬로톤(KT)의 핵무기를 뉴욕시로 반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”고 밝혔으며, 케네디스쿨의 브렌다 섀퍼 교수도 “이란의 핵개발을 제지하지 않으면 (미국에) 핵테러가 올 것”이라고 예언했다.

미국의 이같은 핵테러 공포는 핵무기 잠재 개발국에 대한 억제책으로 나타나고 있다. 미국은 핵보유 추정국 이스라엘은 문제삼지 않은 채 이란과 북한에 대해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. 그러나 아직 두 나라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 이란은 “평화 목적의 핵개발”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,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지만 진척이 더디다. 이런 가운데 한국의 우라늄농축 실험과 80년대의 플루토늄 추출실험이 불거지자 ‘장난 수준’이라는 한국의 해명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“수년간 속임수를 썼다”고 공격했다. 미 CNN은 ‘핵테러’라는 제목의 특집을 수일내 방송할 예정이다.

핵무기 문제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역설(逆說)을 잘 보여준다.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(NPT) 아래 ‘핵주권’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인 ‘핵 클럽’의 독점권을 인정한다. 지난달 피폭자 위령식에

금지를 따를 수 없다"고 비난했다. 군국 일본의 침략으로 핵공격을 받았음을 언급하지 않은 그의 발언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꾼 역설이다. 1만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오늘도 소형핵무기(미니뉴크)를 개발중이며, 미 의회는 두달 전 핵탄두 연구개발 예산지출을 승인했다. 그러나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9·11테러에 이은 핵테러를 걱정하고 있음은 서글픈 현실이며 거대한 역설이 아닐까 싶다. / 설원태 (국제부 차장)

<출처 : 경향신문 오피니언 2004. 9. 14>